

## 러 선박 광안대교 충돌...네이버엔 부산일보 기사 없어 지방신문협회 “포털, 지역언론 죽이기 중단하라” 성명

### “지역독자는 지역뉴스 볼 수 있게 하라”

2월 28일 부산 광안대교를 러시아 화물선이 충돌한 사건을 부산일보가 가장 먼저 동영상을 첨부해 1보를 전승했다. 하지만 네이버 뉴스 검색 상단은 뒤따라 쓴 서울의 제휴 매체 기사로 채워졌다.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가 3월 7일 채택한 성명서의 일부다.

성명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뉴스편집에서 손을 떼고 ‘구독자’ 중심의 모바일 뉴스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언

론사는 콘텐츠 제휴계약을 맺어 네이버 채널 리스트에 올라 있는 44개 서울 매체에 불과하다. 지역 신문은 한곳도 없다. 콘텐츠 제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뉴스 편집 첫 화면에서 소외돼 왔던 지역 전문 언론은 이제 네이버에서 구독자를 늘릴 기회조차 갖지 못

한다. 설상가상으로 네이버는 지난달 뉴스 검색 알고리즘마저 바꿨다. 네이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검색 결과 리스트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 알고리즘을 변경하지 않는 한 지역 언론의 기사는 발품을 팔아서 쓴 ‘단독’과 ‘1보’ 기사라도 검색 첫 화면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겹게 버티다 끝내 운동장 밖으로 밀려나는 참담함을 느낀다.”

전국 주요 9개 지방 신문사 발행인들로 구성된 한신협은 지난 7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제55차 정기총회를 열고 ‘포털의 지역 언론 죽이기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포털의 디지털 뉴스 시장 황폐화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2면에 성명 전문(全文) 한신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역 언론과의 제휴를 확대해 독자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매체가 생산한 뉴스를 구독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촉구했다.

한신협은 정부를 향해서도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 마련과 포털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시장 황

폐화 현상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 등 정치권에게는 지역언론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위치기반 뉴스서비스’ 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과 ‘지역뉴스 일정 비율 이상 노출 의무화’ 법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등을 속히 처리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새 회장에 이상택 매일신문 발행인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9대 회장으로 이상택 매일신문 발행인(신문협회 부회장)을 선출했다.

## 2019년 한국신문상 수상작 선정

한국신문협회는 2019년 한국신문상 수상작 4편을 선정, 지난 12일 발표했다.

뉴스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는 아시아경제의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 관련 보도와 제주新보의 ‘예멘인 난민 입국 최초 보도 및 연속보도’가 각각 선정됐다. 기획탐사보도 부문에는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보도와 부산일보의 ‘난개발 그늘, 해안의 역습’ 보도가 각각 뽑혔다.

올해 한국신문상 심사는 지난 5

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심사위원으로는 이영만 전 경향신문·헤럴드경제 발행인(심사위원장), 김종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재봉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방문신 관훈클럽 총무, 이재진 한국언론학회 회장(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올해 한국신문상 공모에는 뉴스취재보도 부문 22건, 기획탐사보도 28건 등 총 50건이 응모해 예년에 비해 양적으로 풍성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뉴스취재보도 부문은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파급력

높은 보도가 많았으며, 기획탐사보도 부문은 다양하고 치밀한 취재 기법으로 우리사회의 병폐를 날카롭게 파헤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다”고 총평했다.

시상식은 4월 4일(목)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각 부문별로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한국신문상은 지난 한 해 동안의 뛰어난 보도활동을 통해 한국신문의 발전과 언론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 뉴스취재보도 부문

아시아경제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  
제주新보 ‘예멘인 난민 입국 최초 보도 및 연속보도’

### 기획탐사보도 부문

한겨레신문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부산일보 ‘난개발 그늘, 해안의 역습’

상이다.

### ◆뉴스취재보도 부문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의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 보

도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추적해 진실을 규명한 기자의 노력과 취재력이 돋보였으며, 후속취재를 통해 이후의 전개 과정도 충실히 보도했다”고 평가했다. ▶3면에 계속

## 선진 언론 82% “디지털뉴스 유료화 정착”

### 독일 악셀 스프링거, 14개국 34개 언론사 90명 설문 결과

해외 선진언론 82%는 디지털 뉴스 콘텐츠 유료화가 정착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 미디어 기업 악셀 스프링거(Axel Springer)가 지난 2월 6~7일 제6회 ‘유료 콘텐츠 회담’에서 14개국 34개 언론사 관계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전략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 유료 구독 모델

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면서 응답자 대부분은 충성 독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다.

반면, 글로벌 IT기업(구글, 페이스북 등)의 언론사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는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 포스트(WP), 가디언(The Guardian), 파이낸셜 타임스(FT), 르 피가로(Le Figaro), 십스테드(Schibsted),

빌트(Bild),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 등의 언론사 관계자가 참여했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 “디지털 유료 콘텐츠에 대한 독자 지불의사 증가” 79%

응답자의 82%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답했다. 6%는 중간(그저 그렇다), 1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악셀 스프링거의 스테판 베졸드

상무이사는 “지난해 유료 구독 모델이 성장하면서, 충성독자 확보가 모든 언론사의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독자개발 및 분석팀의 베스 디아즈 부사장은 “신규 독자 확보와 기존 구독자 유지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독자 유지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거리”라고 밝혔다.

디지털 유료 콘텐츠에 대한 독자들의 지불 의사가 증가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9%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불의사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지난해 70%에서 9% 포인트 늘어났다. 17%는 중간(그저 그렇다), 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 유료화 성공의 핵심요소는 ‘유저 플로우·퍼널 최적화’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는 ‘유저 플로우(user flow) 및 퍼널(funnel) 최적화’를 꼽았다.

▶3면에 계속

한국지방신문협회 성명(全文)

# “포털의 지역 언론 죽이기 중단하라”

지역 언론의 운명이 절벽 끝에 섰다. 한 발만 더 밀리면 생명이 끝날 절체절명의 위기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언론의 위기를 외면하는 사이, 그나마 어렵게 버텨가던 지역 언론의 기반마저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다.

포털기업 네이버는 지난해 뉴스편집에서 손을 떼고 ‘구독자’ 중심의 모바일 뉴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언론사는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어 네이버 채널 리스트에 올라 있는 44개 서울 매체에 불과하다. 지역 신문은 한곳도 없다. 콘텐츠 제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뉴스 편집 첫 화면에서 소외돼 왔던 지역 정론 언론은 이제 네이버에서 구독자를 늘릴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네이버는 지난달 뉴스 검색 알고리즘마저 바꿨다. 네이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검색 결과 리스트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 알고리즘을 변경하지

않는 한 지역 언론의 기사는 발품을 팔아서 쓴 ‘단독’과 ‘1보’ 기사라도 검색 첫 화면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실제 지난 28일 부산 광안대교를 러시아 화물선이 충돌한 사건을 부산일보가 가장 먼저 동영상을 첨부해 1보를 전송했지만 네이버 뉴스 검색 상단은 뒤따라 쓴 서울의 제휴 매체 기사로 채워졌다. 지역 신문의 기사는 검색 상단에 걸렸다 해도 콘텐츠 제휴사가 해당 뉴스를 쓰기 시작하면 비(非) 제휴매체인 지역 신문의 기사는 순식간에 밀려나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겹게 버티다 끝내 운동장 밖으로 밀려나는 참담함을 느낀다.

뉴스 품질 저해 때 상위 노출을 시키지 않겠다는 네이버의 설명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비슷한 기사를 묶어주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악용한 언론사 기사는 여전히 검색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 언론사와 기자 바이라인만 다를 뿐 제목과 내용은 같은 기사들이다.

우리나라는 포털과 모바일을 통한 뉴스 유통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 같은 뉴스 유통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네이버의 지역 매체 배제는 디지털 뉴스 시장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서울의 여론만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지역 매체에게는 디지털 공론장에서의 도편추방이나 다름없다.

지역 언론의 위축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위협이자 지방자치의 왜소화로 이어진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역과의 상생’도 지역 언론을 통해 정책과 여론이 소통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작금의 현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역 언론과의 제휴를 대폭 확대하고

독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뉴스를 구독할 수 있도록 뉴스 선택권을 돌려 달라.

1. 네이버는 모바일 콘텐츠 제휴사, 클러스터링 중심 뉴스를 우대하는 알고리즘을 폐기하라.

1. 정부는 위기에 빠진 지역 언론이 활력을 회복해 지역언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

1. 정부는 뉴스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포털 기업들이 이윤을 앞세워 언론시장을 황폐화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

1. 국회는 언론의 중앙 집중과 지역 언론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안들을 마련하라. 특히 이미 발의된 ‘포털의 위치기반 뉴스서비스’ 법안과 ‘지역뉴스 일정 비율 이상 노출 의무화’ 법안 등을 속히 처리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

2019. 3. 7  
한국지방신문협회

# 佛 10개 미디어, 올 9월 통합 로그인 시스템 구축

## 하나의 이메일로 100여개 뉴스 사이트 이용 가능 개인 맞춤형 광고·서비스 등은 각 언론사의 몫

프랑스의 10개 미디어 그룹이 독자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하나의 이메일 계정으로 100여개 미디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론칭한다.

미국 IT 전문 매체 디지데이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프랑스의 10개 미디어 그룹은 올 9월 통합 로그인 시스템 론칭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향후 3년 동안 5백만 유로(한화 약 64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참여한 미디어 기업은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르(Le Figaro) △이동통신 업체 알티

스(Altice) △프랑스 파리 신문사 팀 미디어(Team Media) △민영 오락TV 및 라디오 채널 M6-RTL △엘르(ELLE) 잡지를 발행하는 미디어그룹 라가르데르 그룹(Lagardère Active) △프랑스 내 체코 미디어 투자그룹(Czech Media Invest France)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 minutes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르파리지옌(Les Echos-Le Parisien) △프랑스 정치 주간지 르 뵘앵(Le point)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 등이다. 이들 매체의 웹사이트 방문자를 합치면 프랑스 인

터넷 사용자의 약 80%에 달한다.

이용자들은 통합 로그인 시스템에 이메일 주소만 등록하면 약 100여 개 미디어 사이트에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오직 이메일 주소만 수집한다.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면 회원사 및 경쟁사 간 관계가 복잡해지고 더 많은 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통해 유입된 이용자와 관계를 쌓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광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각 언론사의 몫이다. 각 언론사는 로그인 이용자들을 상대로 알람 설정,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다.

언론사들이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구글·페이스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언론사들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로그인 시스템을 자사 로그인에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특히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으로 이용자의 데이터 수집·사용을 위한 동의 절차가 복잡해져 이용자들은 각 언론사별로 번거로운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가입 및 로그인을 회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통해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4면에 계속

# 프랑스, 구글 등 IT기업에 ‘3% 디지털세’ 부과 법안 발표

## “올 1월로 소급해 과세...연간 6400억 원 세수 기대”

프랑스 정부가 구글·애플 등 거대 IT기업에게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지난 6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거대 IT기업들에게 영업매출의 3%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은 이후 장관급 심의를 거친 후 의회로 넘어가 제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거대 IT기업의 인터넷 광고, 개인정보 거래·중개 등 3개 사업을 상대로 올해 1월로 소급해 과세한다. 전 세계 연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9523억 원)를 넘거나,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약 317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약 30여개 IT 기업들이 대상이다. 프랑스 정부는 연간 5억

유로(약 6400억 원) 정도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을 통해 21세기형 세금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정의를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에서 IT기업의 세율은 10%로 기존 기업들(23%)보다 낮다. 르메르 장관은 디지털세가 프랑스에서 먼저 도입됐지만 유럽 전역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덧붙였다.

당초 프랑스는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을 조정해 합의를 보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 독자적으로 강행하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회원국에 적용되는 디지털세를 고려하고 있지만, 내년까지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과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고 현지 세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 선진 언론 82% “디지털뉴스 유료화 정착”

▶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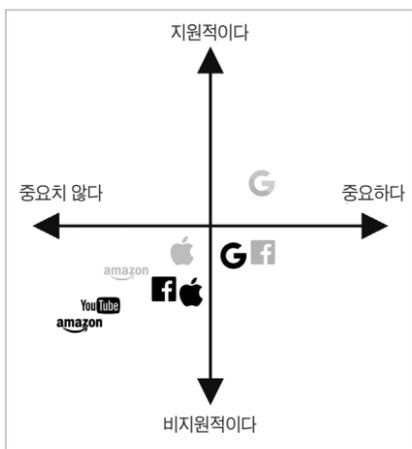
유저 플로우는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서 구독 및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따르는 경로이며, 퍼널은 사용자를 구독자로 이끌어 내는 과정, 즉 사용자가 서비스 접속 후 상품을 구매하기까지의 경로를 뜻한다.

‘독자 이탈 방지 및 고객관리시스템(CRM)’이란 응답은 86%로, 지난해 4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이어 ‘데이터 분석 및 활용(85%)’, ‘신문 제작 및 콘텐츠 투자·비용 최적화 및 상품 포트폴리오(80%)’ 등의 순이었다.

## 뉴스 유통 플랫폼(IT 기업)의 중요도 및 미디어 지원 만족도는 하락

설문조사 결과,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뉴스 유통플랫폼 업체의 중요도 인식과 미디어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중요도가 크게 낮아졌다. 또 지난해 유일하게 지원 만족도가 높았던 구글은 올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프텐포스텐의 CEO인 에스펜 에길 한센은 “재정상태가 뒷받침되어야 저널리즘을 유지할 수 있다. 유료 구독모델을 아직 산업이라고까지 얘기하긴 어렵지만, 독일, 미국



디지털 업체별 중요도(Important) 및 지원 만족도(Supportive) 평가. 회색은 지난해(2018), 검정색은 올해(2019) 평가 결과다.

등에서 성공 사례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 국내 유료화, 포털 아웃링크 전환 등 과제 해결 급선무

미국 및 유럽의 다수 언론사가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국내 언론환경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뉴스 유통을 독점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원사 관계자들은 국내 언론이 디지털 유료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포털 뉴스

아웃링크 전환 ②콘텐츠 차별화·고급화 등 저널리즘에 충실 ③디지털 중심 통합 뉴스룸 구축 ④지불 방식·구독 옵션 등 최적화 ⑤‘뉴스=공짜’ 인식 전환 ⑥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 美 언론연구소, 유료독자 늘리는 구독제안 페이지는?

- ① 최상의 구독 제안 강조
- ② 구독 옵션별 세부사항 비교표 제시
- ③ 독자 참여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기법 사용

미국신문협회 산하 미국언론연구소(API)는 지난 2월 언론사의 유료 구독을 효과적으로 늘리는 구독제안 페이지 전략을 공개했다.

미국언론연구소가 제시한 전략은 ①최상의 구독 제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최상의 제안’, ‘90% 이상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것 ②비교표로 구독 옵션별 세부사항을 명확히 보여줄 것 ③인터랙티브 기법 및 독자 참여를 유도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려할 것 등이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 최상의 구독 제안임을 강조하라

언론사는 시각적 효과를 사용해 각각의 구독 상품을 구별해 표시해야 한다. 구독 제안 페이지 내 ‘최상의 제안(best offer)’ 표시는 독자의 구독 선택을 유도하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저널 센티널’은 구독 제안 페이지에서 매월 99센트 옵션에 ‘최상의 제안’ 표시를 해 가장 저렴한 옵션으로 유도를 한다.

시애틀 타임스는 구독 제안 페이지 내 옵션에 ‘90% 이상 할인’ 문구를 통해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찾아다니는 사람(bargain hunter)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신규독자들에게 ① 종이신문 구독 ② 디지털 구독 ③ 종이신문+디지털 구독 등 3가지 옵션 모두 똑같이 12\$의 구독료를 지불하면 되도록 배치해, ③ 종이신문+디지털 구독을 선택하도록 이끈다.

### 비교표로 구독 옵션별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어라

구독 옵션 비교표는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구독 제안 및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볼티모어 선 및 스타 트리뷴의 구독 제안 페이지는 각 옵션의 세부사항을 보기 편하게 표로 제시하고 있다. 가령 무제한 디지털 접근이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상품임을 강조하거나, 다른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을 표시한다.

미국 마케팅 전문 연구기관인 마케팅프로프스의 구독 제안 페이지는 추천 옵션을 다른 색상으로 표시를 하고 중앙에 배치한다. 또 추천 옵션에만 무료 평가판을 배치해 해당 옵션으로 독자를 유도한다.

### 독자 참여를 유도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려하라

구독 제안 페이지의 성공 사례는 언론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한 많은 구독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이들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구독 제안에 인터랙티브 요소 및 강한 호소 기법 등을 사용한다.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양식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폼 스택은 이용자가 버튼을 클릭해 월간 및 연간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월별 할인율을 보여줌). 또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을 표시해 해당 옵션 선택을 유도한다.

웹 기반의 시간 추적 도구를 판매하는 허베스트는 ‘팀’ 옵션 및 ‘개인’ 옵션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한다. 이 전략은 가치 있는 고객이 될 수 있는 팀 구독을 장려하기 위한 장치로 팀 구독은 구독 유지 및 도달범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앞서 API는 지난해 11월 유료 독자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등록 페이지를 간단하고 간결하게 구성한 모범 사례로 ① 독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하기 ② 글머리 기호를 통해 문구 단순화하기 ③ 명확한 가치 제안 제시하기 ④ 다양한 보안 결제 옵션 제공하기 ⑤ 모바일 친화적 페이지 만들기 ⑥ 고객 서비스 섹션에 대한 빠른 접근 제공하기 등 6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 2019년 한국신문상 수상작 선정

▶1면에서 계속

제주新보 좌동철, 흥의석 기자의 ‘예멘인 난민 입국 최초 보도 및 연속보도에 대해서는 “예멘 난민의 입국을 비롯해 그들의 취업 실태와 생활상 등을 22차례에 걸쳐 추적 보도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진 점이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 ◆기획탐사보도 부문

한겨레신문 김완, 변지민, 박준용, 장나래 기자의 ‘가짜뉴스 뿌리를 찾아서’ 보도에 대

해서는 “가짜뉴스를 누가 왜 만들었는지 밝히기 위해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생산자를 역추적하는 치열한 취재과정이 돋보였다”며 “새로운 현상으로 떠오른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는 등 기획탐사보도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부산일보 박진국, 김한수, 민소영, 이승훈, 김준용 기자의 ‘난개발 그늘, 해안의 역습’ 보도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난개발의 문제점을 현장 취재와 방대한 데이터 분석, 다양한 해외사례 등을 통해 날카롭게 파헤쳤다”며 “지역신문 탐사보도의 본보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 ‘찾아가는 진로탐색 기자’ 신청하세요

5~11월 전국 180개 학교 강의

신문협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의 신문에 대한 관심 증진과 진로탐색을 위해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사 기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①신문의 사회·교육적 역할 ②신문기자의 세계 ③신문을 활용한 진로탐색 ④신문제작과정 및 기사작성법 등에 대해 강의하는 것이다.

전국 180개 학교를 대상으로 5~11월 실시하며, 올해는 특히 농산어촌 지역을 10%정



도 의무적으로 배정해 교육 소외지역을 우선 배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5명 이내의 기사를 선정해 3월 22일까지 협회에 알려주면 된다.

### 회원사 동정

**국민, 한국장애인상담학회와 업무협약**  
국민일보(발행인 변재운)는 4일 본사에서 한국장애인상담학회와 장애인상담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전문상담사 양성과정 개발, 장애인들의 심리치유와 재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매경, 녹색경영대상 공모**  
매일경제(발행인 손현덕)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환경경영 분야 정부 포상인 녹색경영대상을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국내 활동 중인 기업, 공공기관, 단체·개인 유공자이며, 포상 부문은

대통령·국무총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 표창 등이다. 접수마감은 4월 5일이다.

**조선, '2019 서울하프마라톤대회'**  
조선일보(발행인 홍준호)는 '2019 서울하프마라톤대회'를 4월 28일 개최한다. 참가 코스는 하프·10km 부문이며, 참가 인원은 1만명(결제선착순)이다.

**한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한국일보(발행인 이준희)는 3월 21~23일 코엑스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광역 시도 및 시군구,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대기업·중소기업, 은행, 대학 등이다.

**강원, '인터넷 어린이강원'으로 전환**  
강원일보(발행인 박진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어릴 때부터 IT에 익숙해 있는 어린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그동안 종이신문 형태로 제작했던 어린이강원 일보를 7일부터 '인터넷 어린이강원일보'로 전환했다.

**경기, 전국 50·60대 축구대회**  
경기일보(발행인 신항철)는 4월 13~14일 안성맞춤A구장 등에서 '2019 안성맞춤 전국 50·60대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50대·60대부 각각 18팀을 선착순 접수하며, 접수마감은 4월 3일이다.

**경북도민, 소지면 컬러 발행**  
경북도민일보(발행인 김찬수)는 오는 3월 30일 창간 15주년을 맞아

4일자부터 소지면을 컬러로 발행한다. 서체도 9.5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키워 가독성을 높이는 등의 지면개편을 단행했다.

**국제, '초·리틀·중학교 야구대회'**  
국제신문(발행인 박무성)은 '제31회 롯데기 초·리틀·중학교 야구대회'를 3월 8~14일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부산·울산의 초·리틀·중학교 34개 팀이 참가한다.

**영남, 경산시·공공창의연구 협약**  
영남일보(발행인 노병수)는 2월 22일 경산시청에서 경산시·대구경북공공창의연구원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 및 활동가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새 100년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선일보 창간 99주년 기념식**  
조선일보(발행인 홍준호)는 5일 본사 미술관에서 창간 99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방상훈 사장은 기념사에서 “창간 100주년을 1년 앞둔 지금, 종이신문 감소와 SNS를 통한 가짜뉴스 범람 등으로 미디어 업계가 처한 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밝힌 뒤, “100년간 종이신문에서 쌓은 경쟁력을 방송과 디지털에 성공적으로 접목하는 과제와 더불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속 가능한 미디어로 성장”

**경남신문 창간 73주년 기념식**  
경남신문(발행인 최광주)은 4일 본사 웨딩홀에서 창간 7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최광주 발행인은 기념사에서 “3·1 독립정신 구현을 창간이념으로 하고 있는 경남신문의 올해 창간기념일은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뒤 “현재 신문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품질 저널리즘 지향과 디지털 퍼스트 전략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해가자”고 강조했다.

### 佛 10개 미디어, 올 9월 통합 로그인 시스템 구축

▶2면에서 계속

**독일·스웨덴·포르투갈도 통합 로그인 시스템 시행 중**  
프랑스에 앞서 독일, 스웨덴, 포르투갈 등은 이미 미디어 업체 간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이다.

독일의 악셀스프링거는 2017년 언론사, 자동차 업체, 은행, 보험사 등 유력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온라인 개인정보 공동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용자들은 통합 로그인 시스템에 개인 계정을 한 번 만들면 여러 제휴사 사이트에 로그인 이 가능하다.

스웨덴의 5개 미디어 기업은 2017년 12월 '스베리예스 로칼뉴헤테르'라는 통합 로그인 플랫폼을 론칭했다. 제휴 언론사의 유료 구독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통합 로그인 플랫폼을 활용해 5개 미디어 기업에 속한 40개 지역 뉴스 사이트와 앱을 이용할 수 있다.

포르투갈의 주요 미디어기업 6개사는 2018년 3월 독자 데이터를 통합하는 프로젝트 '노니오'를 시행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매체의 이용자들은 한 번 로그인 하면 6개 미디어기업 소유의 수백 개 사이트뿐 아니라 TV 및 주문형 라디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발행인 동정

**박종면** 머니투데이 발행인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산업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발행인은 2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다문화정책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발행인은 1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열린 3·1절 제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평화의 종을 타종했다.

**엄주호** 경성일보 발행인은 4일 울산 CK아트홀에서 열린 '제9기 비즈니스컬처스쿨' 개강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박무성** 국제신문 발행인은 2월 25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어린이 극지해양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이상택** 매일신문 발행인은 2월 21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 경북 유림단체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축하 떡 케이크를 커팅했다.

**노병수** 영남일보 발행인은 5일 호텔인터볼고 대구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아카데미 19기 입학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최윤정** 중부일보 발행인은 2월 21일 경기도문화의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중부울곡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 신문협회보

회장 이병규  
사무총장 허승호  
발행처 한국신문협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더 높은 품질, 더 넓은 세계...  
최고의 신문인쇄  
KORINK가 약속 드립니다.



KORINK 한국신문인쇄(주)  
www.korink.com